

# 『萬病回春』 醫案속에 보이는 朝夕補法에 관한 연구

양영준,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 Abstract

### *A Study on the Jo-Seok-Bo-Beop(朝夕補法) of the case reports in Man-Byeong-Hoi-Chun(萬病回春)*

Yang Young Jun ◆ · Ahn Sang Woo ◇

◆Korea Institute Study Course of Oriental Medicin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Man-Byeong-Hoi-Chun(萬病回春) is the principal book of Gong Tingxian(龔廷賢) who was a physician in the time of Ming(明) dynasty. It has been widely used in Korea and Japan.*

*We recently analyzed the case reports in the book and found that he made some prescriptions by day and night separately. The method was based on the Jo-Seok-Bo-Beop(朝夕補法) by 薛己. We thought that it was an important key to his ideas in medicine.*

*So we reviewed the origi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Jo-Seok-Bo-Beop and considered the clinical usages.*

*Key words: Jo-Seok-Bo-Beop(朝夕補法), case report(醫案)*

## I. 序論

『萬病回春』은 明나라 醫家인 龔廷賢(1522-1619)의 대표저작으로 『內經』 이후부터 張仲景, 金元四大家, 明나라 中期까지의 醫學을 종합 정리하여 조선뿐 아니라 일본의 의가들도 많이 이용하였다. 『萬病回春』은 총8권으로, 1券은 總論에 해당하고 2券에서 8券까지는 각 병증의 분류에 따라 脈訣, 病論, 治法, 方藥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각 門의 말미에는 자신이 사용하여 효과가 있었던 醫案과 古人들의 經驗醫案을 기록하여 後人들이 이론을 정리하고 임상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자는 최근에 『萬病回春』에 기록된 204개의 의안을 분석<sup>1)</sup>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병증에 대하여 아침, 저녁으로 處方을 다르게 구분하여 치료하는 龔廷賢의 독특한 治療方法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 기본연원이 薛己의 朝夕補法<sup>2)</sup>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현의 독특한 임상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가 그의 의학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萬病回春』의 朝夕補法에 관한 일차적인 연구로서, 먼저 조석보법의 유래와 기본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本論

### 1. 『萬病回春』 조석보법의 유래

朝夕補法이란 하루에도 아침·저녁으로 人體의 陰陽이 변화한다고 생각하고 환자를 치료할 때에도 晝夜 晨昏의 人體 陰陽變化에 따라 아침·저녁으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治法을 병행하여 사용한 치료방법이다.<sup>3)</sup> 온보학과파의 선도적인 인물인 명나라 설기(1486-1558)의 의안에서 조석보법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데 『內科摘要』에 실려 있는 설기의 조석보법 의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2券(中風-哮喘)에 24개, 3券(癩疾-發熱)에 13개, 4券(補益-諸蟲)에 23개, 5券(頭痛-瘧病)에 37개, 6券(婦人科)에 50개, 7券(小兒科)에 40개, 8券(癰疽-奇病)에 17개 등으로 부인과 소아 관련 의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의 盛維忠이 主編한 『薛立齋醫學全書』에서 아침·저녁으로 처방을 구분하여 치료한 방법을 '朝夕補法'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도 위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치료방법을 '朝夕補法'이라고 한다.

3) 盛維忠 主編, 『薛立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93

中書 鮑希伏이 평소에 陰虛하여 咳嗽病을 앓았는데 淸氣化痰丸과 二陳湯에 黃芩 黃連을 加한 약물을 복용하고 痰이 더욱 심해졌다. 四物湯에 知母 黃柏 玄參을 加한 약물을 사용하니 배가 부어오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右側 關脈은 浮弦하고 左側 尺脈은 洪大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脾土가 이미 肺金을 生하지 못하는데 陰火가 또 쫓아 와서 그것을 克하게 되니, 마땅히 化源을 滋養하여야 한다.”라 하고, 아침에는 補中益氣湯에 山茱萸 麥門冬 五味子を 加해서 사용하고, 저녁에는 六味地黃丸에 五味子を 加해서 사용하였더니 삼개월여 만에 慎疾이 나아서 기뻐하였다.<sup>4)</sup>

한 선비가 평소에 勤苦(애를 써가며 부지런히 일함)하다가 飲食이 失節함으로 因하여 大便으로 下血하였는데 혹은 붉기도 하고 혹은 검기도 하였다. 반년이 지난 후에는 便血하지 않으면 盜汗이 있었고, 惡寒하지 않으면 發熱이 생겼는데, 血과 汗을 치료하는 두 가지 약물을 사용해 보았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으며, 六脈이 浮大하고 心脾의 脈은 澀하였다. 이것은 思慮過多로 心脾를 손상하여 血을 統攝하여 根源으로 돌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血은 곧 汗이요, 汗은 곧 血이 되는 것인데, 그 色이 赤黯하고 便血 盜汗하는 것은 모두 火가 升降하는 것이 微甚할 따름이고, 惡寒 發熱하는 것은 氣血이 俱虛한 것이다. 오전에 補中益氣湯을 사용하여 脾肺의 根源을 補하여서 下陷된 기운을 들어주고, 오후에는 歸脾湯에 麥門冬 五味子を 加해서 心脾의 血을 補하여서 耗散된 津液을 거두어들이니 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諸症이 모두 나았다.<sup>5)</sup>

『萬病回春』에는 모두 204개의 의안이 실려 있는데 공정현이 평소에 경험하여 효과를 본 의안도 있고, 간혹 古人들이 효과를 본 의안들 중에서 공정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실은 의안도 있다.<sup>6)</sup> 특히 그 중에서도 설기가 경험한 의안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萬病回春』의 조석보법과 관련된 의안들도 대부분이 설기의 서적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萬病回春』 「婦人科-調經」에 나오는 의안을 살펴보면,

한 부인이 해질 무렵에 열이 나면서 肢體瘦倦 食少無味 月經不行하고, 혹 코피가 나가나, 혹은 血崩하기를 만난 정도가 되었다. 혹자가 順氣 淸熱시키는 약을 사용하였는데 효과가 없었고, 寒熱이 있거나 때때로 구역질을 하려고 하였다. 나는 鬱怒로 虧損되어 생긴 脾胃의 濕火가 錯經妄行하여서 그렇다고 생각하였다. 아침에는 補中益氣湯을, 저녁에는 六味地黃丸을 各 數劑씩 사용하였더니 반년 후에 나았다.<sup>7)</sup>

4) 『內科摘要·脾肺虧損咳嗽痰喘』“中書鮑希伏 素陰虛 患咳嗽 服淸氣化痰丸及二陳芩連之類 痰益甚 用四物黃柏知母玄參之類 腹脹咽啞 右關脈浮弦 左尺脈洪大 余曰 脾土既不能生肺金 陰火又從而克之 當滋化源 朝用補中益氣加山茱麥門五味 夕用六味地黃丸加五味子 三月餘 喜其慎疾得愈”

5) 『內科摘要·飲食勞倦虧損元氣』“一儒者素勤苦 因飲食失節 大便下血 或赤或黯 半載之後 非便血則盜汗 非惡寒則發熱 血汗二藥用之無效 六脈浮大 心脾則澀 此思傷心脾不能攝血歸源 然血即汗 汗即血 其色赤黯 便血盜汗皆火之升降微甚耳 惡寒發熱氣血俱虛也 乃午前用補中益氣以補脾肺之源 舉下陷之氣 午後用歸脾加麥門五味以補心脾之血 收耗散之液 不兩月而諸症悉愈”

6) 『萬病回春·凡例』“醫案附於各病之末 蓋爲前病發之 有所未盡者 悉系余素日經驗 間有用古人得效者亦錄之”

7) 『萬病回春·調經』“一婦人嘔熱 肢體瘦倦 食少無味 月經不行 或鼻衄 或血崩半載矣 或用順氣淸熱等劑 不應更加寒熱 且時欲作嘔 余以爲鬱怒虧損 脾胃濕火 錯經妄行而然耳 遂朝用補中益氣湯 夕用六味丸 各數劑

이 의안은 薛己가 補注한 『明醫雜著』 「婦人女子經脈不行」에서 인용한 것이고, 「婦人科-帶下」편에 나오는 또 다른 조석보법 의안을 보면,

한 부인이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痰을 吐하고 가슴이 그득하면서 氣喘하였다.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조금 완화되었고, 白帶下로 二十餘年동안 고생하였는데 여러 약물이 효과가 없었다. 이것은 氣가 虛하여서 痰飲이 있는 것이니, 痰飲이 나오면 帶下는 자연히 좋아지게 된다. 드디어 아침에는 六君子湯을 사용하고 저녁에는 六味地黃丸을 사용하였더니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나왔다.<sup>8)</sup>

이 의안은 설기의 『女科撮要』 「帶下」편에서 인용하고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萬病回春』에 나오는 醫案 중에서 朝夕補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안은 모두 11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두 9개의 의안이 설기의 책이나 설기가 校注한 책에 실려 있는 경험의안을 인용한 것이다.<sup>9)</sup> 따라서 公正현이 사용한 조석보법의 기본모델이 설기의 조석보법이고, 실제 임상치료에 있어서도 설기의 방법을 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公正현 의학의 기본사상은 脾胃와 腎命門의 作用을 중시하는 설기의 의학사상과 일정정도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조석보법의 기본원리

조석보법의 유래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朝夕補法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종류의 治法을 오전, 오후의 간격을 두고 동시에 사용하는데 있다.

설기가 저술한 『癘瘍機要』 「變症治法」에 실린 내용을 통해서 아침·저녁으로 처방을 사용하는 기본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설기는 아침에 증상이 급하면 陽虛·저녁에 증상이 급하면 陰虛라는 원칙 하에서 조석보법을 사용하고 있다.

肚腹이 腫脹한 경우에, 만약 아침에 증상이 가볍고 저녁에 급해지면 陰虛에 속하고, 저녁에 증상이 가볍고 아침에 급하게 되면 陽虛에 속하고, 아침과 저녁에 증상이 모두 급해지면 陰陽이 모두 虛한 것이다. 陽虛한 사람은 아침에 六君子湯·저녁에 加減腎氣丸<sup>10)</sup>을 사용하고, 陰虛한 사람은 아침에 四物湯加人蔘白朮·저녁에 加減腎氣丸을 사용하고, 眞陽이 虛한 사람은 아침에 八味地黃丸·저녁에 補中益氣湯을 사용한다.<sup>11)</sup>

半載而痊”

8) 『萬病回春·帶下』 “一婦人頭暈吐痰 胸滿氣喘 得食稍緩 苦於白帶二十餘年 諸藥不應 此氣虛而痰飲也 痰飲愈而帶自愈 遂朝用六君子湯 夕用六味丸 不月而愈”

9) 『明醫雜著』에서 2개, 『女科撮要』에서 2개, 『校注婦人良方』에서 2개, 『保嬰撮要』에서 3개가 인용되었다.

10) 八味丸에 牛膝 車前子가 더해진 처방으로 '加減金匱腎氣丸'이라고도 한다. 脾胃虛寒으로 인해서 생기는 小便不利 肚腹脹痛 四肢浮腫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위에서 설기는 아침·저녁의 症狀의 輕重에 따라서 아침에 증상이 급하면 陽虛, 저녁에 증상이 급하면 陰虛로 구별하였고, 陽虛일 경우에는 補中益氣湯 六君子湯 등의 脾臟의 陽氣를 보강하는 처방을 아침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陰虛일 경우에는 四物湯이나 六味地黃丸 등의 陰血을 補하는 처방을 저녁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sup>12)</sup> 공정현도 위에서 말한 설기의 관점을 대략적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공정현은 陰陽을 血氣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즉 설기는 아침에 증상이 급하면 陽虛, 저녁에 증상이 급하면 陰虛로 구별하였지만 공정현은 아침에 증상이 급하면 氣虛, 저녁에 증상이 급하면 血虛로 구별하였다. 이러한 공정현의 기본사상은 그의 책 속에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아침에 증상이 가볍고 저녁에 급해지면 血虛이고, 저녁에 증상이 가볍고 아침에 급해지면 氣虛이고, 아침과 저녁에 증상이 모두 급하면 氣血俱虛한 것이다.<sup>13)</sup>

아침에 가볍고 저녁에 급한 것은 血虛인데 당귀 천궁 백작약을加해서 사용하고, 저녁에 가볍고 아침에 급한 것은 氣虛니 인삼 백출을 倍로 해주며, 아침·저녁으로 증상이 모두 급한 것은 氣血이 모두 虛한 것이니 雙補하는 것이 마땅하다.<sup>14)</sup>

모든 질병이 낮에 심해지고 밤에 안정되는 것은 陽病이 有餘한 것이니 氣가 病이 들고 血은 病들지 않은 것이다. 밤에 심해지고 낮에 안정되는 것은 陰病이 有餘한 것이니 血이 病들고 氣가 病들지 않은 것이다.<sup>15)</sup>

공정현이 이와 같이 陰陽에 대한 관점을 血氣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된 데는 인체를 바라보는 그의 기본적인 시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공정현은 人體에서 陰陽이 발현되는 모습을 血과 氣의 작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血과 氣가 인체를 구성하는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정현의 저서인 『壽世保元』 「血氣論」에 이러한 공정현의 기본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사람이 태어나는 초기에 陰과 陽이 갖추어지면, 또한 血과 氣도 갖추어진다. 性命을 온

11) 『癘瘍機要·變症治法』 “肚腹腫脹 若朝寬暮急屬陰虛 暮寬朝急屬陽虛 朝暮皆急陰陽俱虛也 陽虛者 朝用六君子湯 夕用加減腎氣丸, 陰虛者 朝用四物湯加參朮 夕用加減腎氣丸, 眞陽虛者 朝用八味地黃丸 夕用補中益氣湯, 若肚腹痞滿 肢體腫脹 手足並冷 飲食難化 或大便泄瀉 口吸氣冷者 此眞陽衰敗 脾肺腎虛寒不能司攝而水泛行也 急用加減腎氣丸 否則不救也”

12) 『癘瘍機要·兼症治法』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 치료하는 설기의 대략적인 사용례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發熱在午前 脈數而有力者氣分熱也 用清心蓮子飲 脈數而無力者陽氣虛也 用補中益氣湯 午後脈數而有力者血分熱也 用四物湯加牡丹皮 脈數而無力者陰血虛也 用四物湯加參朮 熱從臍下起者腎虛也 用四物湯加參朮黃柏知母五味子麥門冬 或六味地黃丸”

13) 『萬病回春·水腫』 “朝寬暮急 是血虛 暮寬朝急 是氣虛 朝暮急 氣血俱虛”

14) 『壽世保元·行濕補中湯』 “朝寬暮急血虛 加當歸川芎白芍炒 暮寬朝急氣虛 倍人參白朮 朝暮急者 氣血俱虛 宜雙補之”

15) 『萬病回春·萬金一統述』 “百病晝則增劇夜則安靜 是陽病有餘 乃氣病而血不病也 夜則增劇晝則安靜 是陰病有餘 乃血病而氣不病也”

전하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氣와 血이니, 血氣는 人身의 根本이 아니겠는가? 氣는 陽에서 取하고, 血은 陰에서 取한다. 血은 榮이 되고 榮은 脈中을 運行하는데 滋榮한다는 뜻이 있다. 氣는 衛가 되고 衛는 脈外를 運行하는데 護衛한다는 뜻이 있다. … 따라서 맑은 것은 榮이 되고 탁한 것은 衛가 되는데 榮衛의 두 기운은 끊임없이 흘러서 멈추지 않는다. 하루에 一氣가 50번을 脈을 運行하여 새벽에 다시 氣口에서 만나서 陰陽이 서로 貫통하게 되는데, 榮血과 衛氣가 항상 서로 흘러서 소통된다면 어떤 병이 생길 수 있겠는가? 하나라도 막히게 된다면 百病이 이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다.<sup>16)</sup>

따라서 공정현이 조석보법을 사용하는 기본원리는 인체에서 陰陽이 발현되는 모습을 血과 氣의 작용으로 이해한 그의 기본적인 시각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정현은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를 血과 氣로 파악하였고<sup>17)</sup>, 아침·저녁의 증상의 輕重에 따라서 아침에 증상이 심하면 氣虛, 저녁에 증상이 심하면 血虛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처방운동에 있어서도 氣虛한 경우에 아침에 증상이 심해지므로 午前에 補氣藥을 많이 사용하였고<sup>18)</sup>, 血虛한 경우에 저녁에 증상이 주로 심해지므로 午後에 補血藥을 많이 사용하였다.

표1의 내용을 통하여 이러한 공정현의 치료경향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아침에 사용한 처방은 補中益氣湯이 8회, 六君子湯 異功散 六味地黃丸이 각 1회씩이며, 저녁에 사용한 처방은 六味地黃丸이 5회, 異功散<sup>19)</sup> 3회, 十全大補湯 歸脾湯 龍膽瀉肝湯 千金消癰丸이 각 1회씩 사용되었다. 즉 공정현은 『萬病回春』에서 朝夕補法을 사용하면서 아침에는 주로 보중익기탕, 육군자탕, 이공산 등의 補氣藥을 위주로 사용하였고, 저녁에는 주로 육미지황환<sup>20)</sup>, 귀비탕, 십전대보탕 등의 補血藥이나 氣血을 雙補하는 처방을 위주로 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침치료	저녁치료
調經	朝用 補中益氣湯	夕用 六味丸
經閉	朝服 補中益氣湯 加桔梗貝母知母	夕用 歸脾湯 送 六味丸

16) 『壽世保元·血氣論』“人生之初 具此陰陽則亦具此血氣 所以得全性命者氣與血也 血氣者乃人身之根本乎 氣取諸陽 血取諸陰 血爲榮 榮行脈中 滋榮之義也 氣爲衛 衛行脈外 護衛之義也 人受谷氣於胃 胃爲水谷之海 灌漑經絡 長養百骸而五臟六腑 皆取其氣 故清氣爲榮 濁氣爲衛 榮衛二氣 周流不息 一日一夜 脈行五十度 平旦復會于氣口 陰陽相貫 血榮氣衛 常相流通 何病之有 一窒碍焉則百病由此而生”

17) 『萬病回春·內傷』에 ‘補氣湯’과 ‘補血湯’이 나오는데 血과 氣를 중시한 공정현의 생각을 처방의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다.

18) 『萬病回春』에 補中益氣湯은 空心午前服, 升陽益胃湯은 早飯後溫服, 補氣湯은 水煎食前服으로 나온다.

19) 異功散은 補氣藥에 속하지만 저녁에 사용하는 異功散에는 當歸 芍藥과 같은 補血藥을 가미하여 사용하고 있다.

20) 『壽世保元·補益』에서 공정현은 六味地黃丸을 肝經의 血이 不足하거나 肝腎의 精血이 不足할 때 사용하고 있다.

帶下	朝用 六君子湯	夕用 六味丸
婦人虛勞	朝用 六味丸	夕用 十全大補湯
婦人陰脫	朝與 補中益氣湯	夕與 龍膽瀉肝湯
癖疾	朝服 補中益氣湯	夕服 千金消癖丸 間與 混元丹
癖疾	朝用 異功散 加升麻柴胡	夕用 異功散 加當歸芍藥
泄瀉	朝用 補中益氣湯	夕用 異功散 加木香
瘧疾	朝用 補中益氣湯	夕用 異功散 加當歸
耳病	食前服 補中益氣湯	五更服 六味丸
痔漏	先用 補中益氣湯 加半夏茯苓 炮乾薑	後用 六味丸 朝夕兩服

표1. 『萬病回春』의 조석보법에서 사용된 처방분류

### 3. 조석보법의 임상에서의 응용원칙

#### 1) 調血보다 調氣의 방법을 중시하였다.

공정현은 人體에서 陰陽이 발현되는 모습을 血과 氣의 작용으로 이해하였고, 이러한 血과 氣가 인체를 구성하는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이 인체를 구성하는 근본요소로서 血과 氣를 중시하였지만, 질병에 대한 치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壽世保元』 「血氣論」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는데,

血은 비유하자면 물과 같고 氣는 비유하자면 바람과 같다. 바람이 물위를 지나가는 것에 血과 氣의 모습이 있다. 무릇 氣는 血의 將帥가 되니, 氣가 行하면 血이 行하고, 氣가 그치면 血이 그치고, 氣가 따뜻하면 血이 매끄럽고, 氣가 차가우면 血이 멎히게 되고, 氣에 一息의 운행되지 못함이 있으면 血에도 一息의 行하지 못함이 있게 된다. 病이 血에서 나왔을 때는 그 氣를 조절해 주면 오히려 도달할 수 있지만, 病이 氣에서 나왔을 때는 구구하게 調血하는 것만으로 어찌 대처가 되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의 一身은 調氣하는 것을 上으로 삼고 調血하는 것을 다음으로 여기니, 先陽后陰의 뜻이 있는 것이다.<sup>21)</sup>

위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공정현은 인체의 질병을 치료할 경우에 調血보다 調氣의 방법을 우선하여 치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調氣를 우선하는 공정현의 사상은 실제 임상치료에 있어서도 胃氣의 작용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질병치료에 있어서 제일 먼저 中焦 脾胃의 기능을 보강시켜 주는 독특한 치료경향을 형성하게 되었다.

#### 2) 비위의 작용을 중시하여 질병치료의 근본으로 삼았다.

21) 『壽世保元·血氣論』 “夫血者譬則水也 氣者譬則風也 風行水上有血氣之象焉 蓋氣者血之帥也 氣行則血行 氣止則血止 氣溫則血滑 氣寒則血凝 氣有一息之不運則血有一息之不行 病出於血調其氣猶可以導達 病原於氣區區調血又何加焉 故人之一身調氣爲上調血次之 先陽后陰也”

『萬病回春』의안에서 공정현이 질병을 치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脾臟의 기능을 보강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약해진 胃氣를 튼튼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현은 질병을 치료할 때 체내 비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補中益氣하는 治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sup>22)</sup> 이러한 공정현의 기본 관점은 그의 서적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말하건대 사람의 一身은 脾胃를 위주로 한다. 脾胃의 氣가 實하면 肺가 그것의 기르는 바를 얻게 되고 肺氣가 이미 盛하면 水가 스스로 生하게 된다. 水가 上升하면 火가 下降하는데, 水火가 既濟하여서 天地가 交泰하는 만남을 이루는 것이다. 비위가 이미 虛하면 四臟이 모두 生氣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東垣先生은 脾胃論 內外傷辨惑論을 저술하여 정성스럽게 모두 脾胃를 단단하게 하는 것으로 根本을 삼았으며, 자신이 만든 補中益氣湯을 여러 처방의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그 立方本旨를 관찰해 보면 가히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補腎하는 것이 補脾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른 것이다.<sup>23)</sup>

무릇 大病後에는 穀食이 소모되고 水氣가 제거되며 精氣가 흩어지고 衛氣가 亡하여서 흔히 便利枯竭함에 이르게 되는데 마땅히 補中益氣하는 것으로 요점을 삼아야 한다. 대개 脾臟은 中州가 되어 사망으로 영양을 공급해주고 위장과 더불어서 그 진액을 행하게 한다.<sup>24)</sup>

또 공정현이 말년에 저술한 『壽世保元』에서는 「脾胃論」편을 따로 설정해서 胃氣가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根本이 되는 것이며, 인체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도 元氣가 虧損한 것이 아니면 胃氣가 弱해지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sup>25)</sup> 실제 임상에서 처방을 투여하여 질병을 치료할 때에도 공정현의 이러한 생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마땅히 疾病의 本末을 잘 살펴서 치료하되 用藥에 能한 의사는 반드시 助胃藥을 사용해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胃氣가 虧損되면 오장육부의 기운이 또한 굵주리게 되므로, 用藥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22) 『萬病回春』의 醫案에서는 補中益氣湯(78회), 六君子湯(18회), 異功散(12회), 歸脾湯(14회), 四君子湯(5회) 등 補脾胃하는 처방을 많이 사용하였다. 총 204개의 醫案 중에서 직, 간접적으로 補中益氣湯과 관련된 醫案이 78개이고, 補脾胃하는 처방을 모두 합한 숫자는 127개인데 이것은 상당한 비중이 아닐 수 없다.

23) 『萬病回春·補益』“愚謂人之一身以脾胃爲主 脾胃氣實則肺得其所養 肺氣既盛水自生焉 水升則火降 水火既濟而令天地交泰之會矣 脾胃既虛 四臟俱無生氣 故東垣先生著脾胃內外傷等論 諄諄然皆以固脾胃爲本 所製 補中益氣湯又冠諸方之首 觀其立方本旨可知矣 故曰補腎不若補脾 正此謂也”

24) 『萬病回春·內傷』“大凡大病后 穀消水去 精散衛亡 多致便利枯竭 宜當補中益氣爲要 蓋脾爲中州 澆灌四旁 與胃行其津液者也 況大腸主津 小腸主液 亦皆稟氣于胃 胃氣一充 津液自行矣 燥甚者 別當以辛潤之 以苦泄之”

25) 『壽世保元·脾胃論』“凡善調脾胃者當惜其氣 氣健則升降不失其度 氣弱則稽滯矣 運食者元氣也 生氣者飲食也 … (중략) … 甚至屋漏雀啄等脈 必元氣先竭然後胃氣不相接濟故也 氣將絕則升降之道廢運化之機弛也 … (중략) … 若傷之日久仍不覺快者 得非元氣虧損而胃氣弱乎”

시 助胃藥으로 도와준다. 무릇 병을 치료할 때는 마땅히 本末을 잘 살펴야 되는데, 만약 痰涎을 토하고 위장이 허약해서 먹지 못하면서 열이 날 경우에 차가운 약물로 退熱시킨다면 胃氣는 더욱 虛해지고 熱도 또한 不退하게 될 것이다. 마땅히 먼저 위장을 도와서 구토를 멎게 하는 것(助胃止吐)을 근본으로 삼는다면 그 熱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며, 설령 열이 물러나지 않더라도 다만 胃氣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서 열이 풀리게 될 것이다. 또 傷寒病으로 大熱한 경우에 여러 번 寒涼疏轉하는 약물을 사용하였으나 그 열이 不退할 경우에도 다만 胃氣를 調和롭게 해 주면 자연히 낮게 된다.<sup>26)</sup>

따라서 공정현은 질병을 치료하면서 환자의 비위가 허약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제일 먼저 살폈는데,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비위가 허약해져 있으면 제일 먼저 약해진 비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치료의 제 1 목표로 삼고 있다.

### 3) 아침에는 약해진 脾胃를 회복시키고, 저녁에는 각 질환별 치료를 겸행하였다.

『萬病回春』에 나오는 조석보법 의안을 정리하면서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공정현이 조석보법을 사용할 때, 시종일관으로 아침에 비위를 보강하는 처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아침에 사용된 11개의 처방 중에서 「婦人虛勞」에 나오는 六味를 사용한 의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補中益氣湯, 六君子湯, 異功散 등의 비위를 보강시키는 처방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저녁에 비로소 개별 질환의 특성에 맞는 처방<sup>27)</sup>을 투여하여 각 질환의 근본치료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처방활용의 결과는 평소에 질병치료에 있어서 중초 비위의 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약해진 비위의 기운을 회복시켜야 질병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공정현의 의학사상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萬病回春』에 나오는 공정현의 조석보법이 脾胃와 腎命門의 작용을 중시하는 설기의 조석보법을 원형으로 하고 있고, 질병 진단에 있어서도 설기의 陽虛 陰虛의 음양관점을 보충하여 氣虛 血虛의 혈기론적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또 실제 임상치료에 있어서도 補氣藥과 補血藥을 위주로 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調血보다는 調氣의 방법을 더 중시하여 보중익기탕 육군자탕 이공산 등의 처방을 많이 사용한 점, 이외에도 胃氣의 작용을 중시하여 體內 胃氣가 弱해져 있을 경우에 반드시 助胃藥을 사용해서 먼저 胃氣를 회복시키는 치료를 병행한 점, 조석보법의 처방구성에 있어서 아침에 사용된 약물이 거의 대부분 비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처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녁에는 각 질환의 상태에 맞게 처방을 구성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즉 공정현이 조석보법을 사용한 이유는 비위를 중시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그의

26) 『壽世保元·血氣論』“胃氣虧則五臟六腑之氣亦餒矣 善用藥者必以助胃藥助之 凡治病當識本末 如嘔吐痰涎胃虛不食以致發熱 若以涼劑退熱則胃氣愈虛 熱亦不退 宜先助胃止吐爲本其熱自退 縱然不退 但得胃氣已正旋與解熱 又有傷寒大熱 累用寒涼疏轉 其熱不退 但與調和胃氣自然安愈”

27) 思慮傷心脾로 인한 經閉에는 歸脾湯, 婦人虛勞에는 十全大補湯, 陰挺下脫에는 龍膽瀉肝湯, 小兒癖疾에는 千金消癖丸, 小兒泄瀉에는 異功散을 사용하였다.

의학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공정현은 거의 모든 질병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胃氣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처방 구성에 있어서도 비위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처방을 陽氣가 上升하는 오전에 사용하여 먼저 弱해져 있는 脾胃의 기운을 보강시켜 주었고, 이후에 각 질환의 특성이나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처방을 저녁에 투여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번갈아 복용함으로써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시도하였다.

#### 4. 조석보법의 임상활용 분석

필자는 위에서 표1의 내용을 통하여 龔廷賢이 朝夕補法을 사용할 때 아침에는 주로 비위를 보강시키는 처방을 위주로 사용하였고, 저녁에는 각 질환의 특성이나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처방을 위주로 치료에 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는 공정현이 어떠한 환자의 경우에 조석보법을 사용하여 치료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공정현이 『萬病回春』에서 조석보법을 사용하여 치료한 의안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대략 아래의 표2와 같이 나눌 수 있는데,

	발병의 특징	朝夕補法	공정현의 辨證
1) 調經	一婦人이 哺熱 肢體瘦倦 食少無味 月經不行하는데 혹자가 順氣 清熱 等劑를 잘못 사용하여 寒熱 嘔吐하는 경우	朝用 補中益氣湯 夕用 六味丸	鬱怒虧損 脾胃濕火 錯經妄行而然
1) 痔漏	一男子가 치질을 앓아서 膿血淋漓 口渴 哺熱便血하였는데 四物湯加知母黃柏黃連을 복용하고 食少瀉嘔한 경우	先用 補中益氣湯加半夏茯苓炮乾薑 後用 六味丸 朝夕兩服	腎肝陰虛
1) 耳病	李少宰가 耳鳴이 있었는데 四物湯을 복용한 후 耳鳴이 더욱 심해짐 <sup>28)</sup>	食前服 補中益氣湯 五更服 六味丸	足三陰虛
1) 瘧疾	一小兒가 먼저 停食으로 腹痛하였는데 峻厲之劑를 복용한 후 疝積이 생김	朝用 補中益氣湯 夕用 異功散 加當歸	元氣下陷
1) 癰疾	一小兒가 疝積을 앓았는데 檳榔 蓬朮 枳實 黃連의 藥물을 복용하고 疝가 더욱 심해짐	朝用 異功散 加升麻柴胡 夕用 異功散 加當歸芍藥	脾經血虛痞也 不可剋伐
2) 帶下	一婦人이 頭暈吐痰 胸滿氣喘하면서 白帶下로 20년을 고생한 경우(諸藥이 不應함)	朝用 六君子湯 夕用 六味丸	氣虛而痰飲也

28) 『壽世保元·耳病』에서는 元氣가 虛損한 증상으로 변증하고, 耳鳴이 오전에 심할 때는 초기에 四物湯加

2) 癖疾	癖塊가 오래되어서 元氣脾胃가 모두 虛해진 경우	朝服 補中益氣湯 夕服 千金消癖丸 間與 混元丹	元氣脾胃俱虛
2) 泄瀉	一小兒가 놀라서 오랫동안 설사하고 面色이 靑黃한 경우	朝用 補中益氣湯 夕用 異功散 加木香	肝木勝脾土也
2) 經閉	一婦人이 胃氣가 평소 弱했는데 신경을 쓴 후에 吐血咳嗽 盜汗發熱 經水三月不行한 경우	朝服 補中益氣湯加桔梗貝母知母 夕用 歸脾湯 送 六味丸	悲則傷肺 思則傷脾
3) 婦人 陰脫	一婦人이 陰挺이 下脫하여서 悶痛重墜 水出淋瀝 小便滯滯한 경우	朝與 補中益氣湯 夕與 龍膽瀉肝湯	
3) 婦人 虛勞	一婦人이 勞嗽 寒熱하였는데 혹자가 清熱之劑를 사용한 후 그 熱이 더욱 심해지고 盜汗 兩足如灸한 경우	朝用 六味丸 夕用 十全大補湯 (이후에 補中益氣湯 兼服)	陰血虛而陽氣弱也

표2. 『萬病回春』 조석보법 의안의 임상활용 분석표

가장 많이 응용한 경우는 1)번으로 환자가 차가운 약물을 잘못 복용하여 허약해진 경우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것은 2)번인데 환자가 오랫동안 질병을 앓아서 허약해진 경우와 평소에 타고난 환자의 체질이 허약한 경우이다. 그 이외에 3)번의 경우는 환자의 개별적인 질병 특성에 따라서 치료한 경우이다.

### 1) 환자가 차가운 약물을 잘못 복용하여 허약해진 경우

공정현이 『萬病回春』에서 조석보법을 사용한 의안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調經> <痔漏> <耳病> <瘡疾> <癖疾> 등 많은 질병의 경우에 응용하였다. 공정현은 평소에 인체에서脾胃의 작용을 중시하여 환자를 치료할 때 반드시脾胃의 虛實 여부를 먼저 판단하였으며, 만약 이러한 진찰 결과 비위의 기능이 약해져 있을 경우에는 다른 치료방법에 우선하여 약해진 비위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처방을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 위 표2에 나타난 다섯 가지 의안의 경우에도 환자가 질병의 초기에 차가운 약물이거나 공격하는 약물을 잘못 복용하여 體內 元氣를 손상시킨 것인데, 그 치료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小兒의 <瘡疾>과 <癖疾>에 나오는 의안은 공격하는 약물을 잘못 복용하였으나 아직 肝腎의 陰血까지는 손상되지 않은 경우로, ‘元氣下陷’이나 ‘脾經의 血虛痞’로 변증하고 보중익기탕 이공산 등의 비위를 회복시키는 처방만으로 치료하였다. 하지만 <調經> <痔漏> <耳病>에 나오는 의안에서는 차가운 약물을 잘못 복용하여 환자의脾胃뿐 아니라 肝

白朮茯苓을 사용하고 오래되면 補中益氣湯을 투여하였고, 오후에 심할 때는 六味丸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四物湯을 복용한 후 耳鳴이 더욱 심해졌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물탕은 陰虛火動으로 인한 이명을 치료하는 四物湯加知母黃柏之類의 처방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정현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비위가 허약할 때는 반드시 비위의 기운을 먼저 다스려 주어야 하므로 補中益氣湯과 六味丸을 함께 처방하여脾胃虛弱과 肝腎陰虛의 증상을 동시에 고려하여 치료하고 있다.

腎의 陰血에까지 손상이 미친 경우로, 먼저 補中益氣湯을 사용하여 약해진 비위의 기운을 회복시켜 주고 동시에 六味地黃丸을 兼服하여 肝腎의 陰血을 滋養하고 있다.

## 2) 오랫동안 질병을 앓아서 허약해진 경우와 평소 타고난 체질이 허약한 경우

『萬病回春』에 실린 조석보법 의안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4개가 나오는데, <帶下> <癰疾> <泄瀉>에 나오는 의안은 오랫동안 질병을 앓아서 허약해진 경우에 해당하고 <經閉>에 나오는 의안은 평소 타고난 환자의 체질이 허약한 경우이다.

<帶下>에 나오는 의안은 한 부인이 거의 20년 동안을 白帶下로 고생하였는데 여러 약물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로, 공정현은 오랫동안 질병을 앓아서 脾臟과 腎臟이 모두 虛弱해져서 水泛爲痰한 것으로 진찰하고 아침에는 脾臟의 痰飲을 치료하는 六君子湯, 저녁에는 腎臟의 痰飲을 치료하는 六味丸을 투여하여 脾腎을 함께 치료하였다. <癰疾>에 나오는 의안<sup>29)</sup>은 癰塊가 오래되어서 元氣와 脾胃가 모두 虛해진 경우인데, 아침에 먼저 보중익기탕을 투여하여 약해진 비위의 기운을 회복시켜주고 저녁에는 小兒癰疾과 積塊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좋은 千金消癰丸<sup>30)</sup>을 복용하였으며, 사이사이에 混元丹<sup>31)</sup>을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倍加시키고 있다. <泄瀉>에 나오는 의안<sup>32)</sup>은 한 소아가 놀라서 오랫동안 설사하고 面色이 靑黃한 경우로 ‘驚瀉’에 해당하는데, 肝木의 기운이 旺盛하여 脾土를 勝한 것이다. 治法은 마땅히 平肝補脾시키고 峻攻하지 않는 것이니, 아침에 補中益氣湯을 사용하여 약해진 비위의 기운을 보강하고 저녁에 五味異功散에 木香을加해서 平肝補脾하게 되면 病이 낮게 된다. <經閉>에 나오는 의안<sup>33)</sup>은 위의 세 가지 경우와는 달리 환자의 평소 타고난 체질이 허약한 경우이다. 한 부인이 평소에 胃氣가 弱했는데 신경을 쓴 후에 吐血咳嗽 盜汗發熱하고 월경이 3개월 동안 不行하였다. 이것은 평소에 胃氣가 弱한 사람이 病에 걸린 것이므로 먼저 오전에 補中益氣湯을 사용하여 약해진 胃氣를 튼튼하게 회복시켰으며, 여기에 肺經의 引經藥인 桔梗을加하여 土生金의 작용을 도와주고, 貝母 知母를加해서 潤肺祛痰하여 咳嗽를 그치게 하였다. 또 思慮傷脾로 因해서 脾臟이 血을 統攝하지 못하여 吐血하고 月經이 3개월 동안 나오지 못하므로 저녁에는 思慮傷脾를 치료하는

29) 『萬病回春·癰疾』“若癰塊日久元氣脾胃俱虛 宜朝服補中益氣湯 夕服千金消癰丸 間與混元丹 兼服治之 獲效者多矣”

30) 『萬病回春·千金消癰丸』“治小兒癰疾 積塊 有殊效. 盧薈 阿魏 靑黛 木香 厚朴薑炒 檳榔 陳皮 各一錢 麥芽炒四錢 使君子去殼 胡黃連 山查肉 香附水浸 三稜醋炒 蓬朮各二錢 水紅花子 神麴炒各四錢 人蔘去蘆 茯苓去皮 白朮去蘆各三錢 甘草炙一錢 右爲末 將阿魏一錢 白水和麴打糊爲丸 綠豆大 每服四五十丸 米飲白湯吞下”

31) 『萬病回春·混元丹』“專治 大人小兒 諸虛百損 五勞七傷 小兒百病隨後引用之 … (중략) … 諸病後 無精神 少氣力 不思飲食 薑棗湯下. 胎寒 手足冷 口氣涼 腹痛腸鳴 薑葱下. 面目四肢浮腫面黃 茯苓皮桑白皮大腹皮 陳皮薑皮湯下. 瘡疾 柳柳枝各五寸 薑三片 煎熟一宿 五更溫熱送下.”

32) 『萬病回春·泄瀉』“一小兒因驚久瀉 面色靑黃 余謂肝木勝脾土也 朝用補中益氣湯 夕用五味異功散加木香 子母俱服而愈”

33) 『萬病回春·經閉』“一婦人胃氣素弱 爲哭母 吐血咳嗽 盜汗發熱 經水三月不行 余以爲悲則傷肺 思則傷脾 遂朝服補中益氣湯加桔梗貝母知母 夕用歸脾湯送六味丸而愈”

歸脾湯을 사용하였는데, 질병이 이미 오래되어 肝腎의 陰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질병의 根源인 치료를 위해서 滋化源하는 六味地黃丸을 兼服하였다.

위에 나온 의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정현은 오랫동안 질병을 앓아서 허약해진 경우와 평소에 타고난 체질이 허약한 경우에 모두 조석보법을 사용하여 치료하고 있다. 우선 아침에는 비위를 보강하는 보중익기탕, 육군자탕 등을 사용하여 약해진 비위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고 저녁에는 각각의 질병특성에 맞추어서 <帶下>에는 육미지황환, <癱疾>에는 친금소벽환, <泄瀉>에는 이공산, <經閉>에는 귀비탕과 육미환을 함께 사용하여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치료를 도모하였다.

### 3) 환자의 개별적인 질병 특성에 따라서 치료한 경우

『萬病回春』에 실린 조석보법 의안 중에서 환자의 개별적인 질병 특성에 따라서 치료한 경우로 <婦人陰脫>과 <婦人虛勞>의 두 가지 의안이 있다. <婦人陰脫>에 나오는 의안<sup>34)</sup>은 한 부인이 陰挺이 下脫하여서 悶痛重墜 水出淋瀝 小便澀滯하였는데, 공정현은 肝脾가 鬱結되어 氣虛下陷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침에 보중익기탕을 투여하여 脾氣를 升補하고, 저녁에 용담사간탕을 투여하여 濕熱을 分利하였다.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된 이후에는 歸脾湯에 梔子 茯苓 川芎 黃柏을加해서 조리해 주었더니 완전히 나왔다. 위 의안에서도 공정현은 먼저 肝脾가 鬱結되어 약해진 비위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침에 보중익기탕을 사용하였고, 저녁에는 용담사간탕을 투여하여 肝臟의 濕熱을 다스려 陰脫의 근본원인을 치료하고 있다. <婦人虛勞>에 나오는 의안<sup>35)</sup>은 한 부인이 勞嗽로 因해서 發熱하거나 혹은 寒熱하였는데 혹자가 清熱之劑를 사용한 후 그 熱이 더욱 심해지고 盜汗口乾 兩足如灸 遍身皆熱한 경우이다. 이 환자가 勞嗽로 因해서 發熱하거나 혹은 寒熱하는 것은 氣血이 俱虛하거나 陰虛火動으로 인한 것인데, 혹자가 誤診하고 清熱之劑를 사용한 후로 그 熱이 더욱 심해지고 盜汗口乾 兩足如灸 遍身皆熱 昏憤如醉 良久熱止方甦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陰血이 虛하고 陽氣가 弱해진 氣血俱虛 증상으로 十全大補湯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陰虛火動의 증상도 兼하고 있으므로 아침에 六味地黃丸, 저녁에 十全大補湯의 朝夕補法을 사용하였다. 한 달 정도 치료한 후에 여러 증상들이 호전되었으므로 補中益氣湯과 六味地黃丸의 朝夕補法으로 변경하여 疾病의 根本的인 치유를 꾀하고 있다.

위에 나오는 <婦人虛勞> 의안의 경우는 공정현의 다른 조석보법 의안과 달리 육미지황환을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것은 ‘勞嗽’가 勞力이나 酒色이 過度하여 안으로 손상을 입거나 혹은 憂怒鬱結 陰虛火動하여서 기침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34) 『萬病回春·婦人諸病』“一婦人陰中挺出一條五寸許 悶痛重墜 水出淋瀝 小便澀滯 夕與龍膽瀉肝湯分利濕熱 朝與補中益氣湯升補脾氣 諸症漸愈 再與歸脾加山梔茯苓川芎黃柏 間服調理而愈 後因勞役或怒氣 下部濕痒 小便不利 仍用前藥即愈 亦有尺許者 亦有生諸蟲物者 皆用此治”

35) 『萬病回春·婦人虛勞』“一婦人患勞嗽 不時發熱 或時寒熱 或用清熱之劑 其熱益甚 盜汗口乾 兩足如灸 遍身皆熱 昏憤如醉 良久熱止方甦 或晡熱至旦方止 此陰虛而陽氣弱也 余朝用六味丸一料 夕用十全大補湯 月餘諸症稍愈 更兼以補中益氣 兩月餘而全愈”

것은 陰血이 虛하고 陽氣가 弱해진 氣血俱虛 증상으로 허리에 사용하는 十全大補湯을 위주로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陰虛火動의 증상도 兼하고 있으므로 아침에 먼저 六味地黃丸을 사용하여 肝腎의 陰血을 滋養하여 음허화동으로 인한 제반증상을 다스려주고 저녁에 다시 十全大補湯을 사용하여 <虛勞>질환의 근본치료를 피하고 있다.

### III 結論

필자는 『萬病回春』의 醫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병증에 대하여 아침, 저녁으로 처방을 다르게 구분하여 치료하는 공정현의 독특한 치료방법인 朝夕補法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萬病回春』에서의 조석보법에 대한 연구가 향후 공정현 의학사상과 치료경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萬病回春』에 나오는 조석보법 의안은 설기의 조석보법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2. 공정현은 『萬病回春』에서 “朝寬暮急 是血虛 暮寬朝急 是氣虛 朝暮急 氣血俱虛”라는 대전제 하에서 조석보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萬病回春』조석보법의 기본원리는 설기가 말한 陽虛, 陰虛의 음양론적 관점을 보충해 주었으며, 실제 임상치료에 있어서도 補氣藥과 補血藥을 많이 사용하였다. 즉 공정현은 『萬病回春』에서 朝夕補法을 사용하면서 아침에는 주로 보중익기탕, 육군자탕, 이공산 등의 補氣藥을 위주로 사용하였고, 저녁에는 주로 육미지황환, 귀비탕, 십전대보탕 등의 補血藥이나 氣血을 雙補하는 처방을 위주로 사용하였다.

3. 공정현은 『萬病回春』에서 조석보법을 사용하면서 약해진 환자의 脾胃機能을 제일 첫 번째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정현은 인체에서 脾胃의 작용을 중시하여 환자를 치료할 때 반드시 脾胃의 虛實 여부를 먼저 판단하였고, 만약 이러한 진찰 결과 비위의 기능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약해진 비위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처방을 아침에 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저녁에는 개별 질환의 특성에 맞춘 처방을 투여하였는데, 이러한 脾胃를 중시하는 공정현의 치료사상이 아침과 저녁으로 처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朝夕補法의 기본모태가 된 것이라 하겠다.

4. 공정현이 임상에서 조석보법을 사용한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환자가 차가운 약물을 잘못 복용하여 체력이 약해진 경우

둘째, 환자가 오랫동안 질병을 앓아서 허약해진 경우와 평소 타고난 체질이 약한 경우

셋째, 환자의 개별적인 질병 특성에 맞추어서 치료한 경우 등이다.

## [參考文獻]

1. 공정현, 『萬病回春』, 중국 인민위생출판사, 1995
2. 공정현, 『增補萬病回春』, 서울 일중사, 1991
3. 공정현, 『壽世保元』, 중국 인민위생출판사, 2003
4. 盛維忠 主編, 『薛立齊醫學全書』, 중국중의약출판사, 1999
5. 劉祖貽 孫光榮 主編, 『中國歷代名醫名術』, 중의고적출판사, 2002
6. 陳大舜 엮음, 김남일 맹웅재 등 역,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7. 함정식, 『衛生寶鑑』 의안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8. 설기, 『薛氏醫案』, 중국중의약출판사, 1997
9. 魯兆麟, 「薛己醫案選析」, 북경중의, 1988